

정기간행물 및 축차간행물의 기계적처리 및 통제

박 계 흥

(KIST도서실 차장)

1. 도서관기능의 자동화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많은 의견의 차이를 보아왔다. 특히 정기간행물 및 축차간행물의 자동화에 관하여서는 찬·반의 의견이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의견은 대개 다음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정기간행물은 처리와 통제가 복잡함으로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한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의견과 “처리와 통제가 복잡하면 할수록 사람이 하여야지 기계에 의존했다가 후에 더 큰 혼란을 갖어올 것이며 또한 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재래식 기록도 함께 보존한다면 인원과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또는 회의적인 의견은 실제로 응용되고 운영되는 System 과 말로만 이용되는 System 을 혼동하는데서 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말과 글로 표현된 여러 System 이 곧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효과적인 System 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간물처리와 통제의 자동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정간물 축차간행물의 다양성과 비정상성, 둘째는 자체개발에서 오는 System 의 다양성 즉 타 System 에의 불신과 행동의 결여 셋째는 표준화된 기록양식의 결여이다.

2. 정기간행물을 자동화하려는 목적은

첫째 정간물을 다른 도서관자료에서 분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둘째 정간물수의 급속한 증가와 종류와 양태의 다양성에서 오는 혼란을 막고 방대하고 불편한 기록과 많은 인원을 절감하여 예산을 줄이고;

셋째 일반 단행본의 Card Catalog 와 달리 이용자가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재래식 기록양식을 기계화하여 이용자가 직접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정기적인 또는 축차적인 간행물의 반복적인 기록이 기계적 기록에 편리함으로 제반 처리기록과 관리기록을 자동화하여 처리를 정확히 하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이유는 도서관에서 접수하는 정기간행물의 중수가 매우 많은 것을 전제로 한다.

3. 정기간행물의 처리와 통제에 Computer 를 도입한 것은 아직 10년 정도밖에 아니된다. 그간 Computer 의 Hardware 나 Software 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그것을 도서관기능 특히 정기간행물처리와 통제에 적용하는 기술과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가 1960년대 말부터 기준에 달하는 System 들이 생겼다. 1949년 미국의 의회도서관에서 처음 Punched Cord 를 잡지처리에 사용한 후 1950년대에는 도서관기능의 일부 또는 정간물기능의 일부 즉 소장목록 연차주문 또는 주문갱신, 회계처리 등의 일부만이 Computer 에 의해 처리되었다. 1960년대 초기에는 종합적으로 제반기능을 일괄하여 다룰 수 있는 System 들이 개발되어 시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4. 생략

5. 여기서 정기간행물처리나 통제를 위한 System 이란 (1) 발주(또는 갱신)과 회계처리제도, (2) 목록, (3) 접수, (4) 계본, (5) 크레임, (6) 출력재생자료 즉(조장사항), (7) 관리행정 및 이용을 위한 통제와 보고서작성 등의 각부면을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6. 위의 여러가지 기능중 어느 일부만을 기계화 한다면 그것은 도서관 정간물 운영관리기능을 기형화 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이나 인적문제로 일시에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1-2년의 시험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상 끝낸 예산면에서도 손실이 많고 정기간행물 운영면에도 차질을 가져오기 쉽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시적인 면에서는 그 경제성을 논할수 없으나 그 효과면에서는 학술집지 2,000종정도 소장하는 곳에서는 고려하여 불만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또한 도서관간의 정기간행물의 협동 이용 문제를 다룰때에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발표하는 박계흥 선생)